

최종보고서

「2027년 제66차 ISI
세계통계대회(WSC)」
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
결과보고서

2024. 8.

제 출 문

통계청장 귀하

본 보고서를 「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(WSC)」
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.

2024년 8월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

「2027 제66차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」 정책성 등급조사 요약

1. 행사 개요

□ 주관기관인 통계청이 제출한 『2027 (WSC) 개최 계획(안)』(이하 『기본계획』)에 따르면 「2027 제66차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」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□ 「2027년 제66차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」 개최 계획

- 기간: 2027년 7월 8일 ~ 7월 15일(잠정)
- 장소: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
- 주관: 통계청, 국제통계기구(ISI)
- 참가 규모: 외국인 2,000명, 내국인 1,000명
- 총사업비: 37억 원
- 주요 행사
 - 논문 발표,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기관장 협력회의, 국제통계기구(ISI) 이사회, 위원회, 총회, 시상식 등

□ 개최목적

- 통계 선진국으로서 한국 위상 제고
- 2001년 이후 26년 만에 세계통계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통계 발전 성과를 소개하여 타국가에 혁신적 모범사례 전파
- 국제통계사회에서 AI, 빅데이터 등 최신 통계이슈 선도

□ 기대효과

- 다양한 주제와 각 분야별 통계 전문가, 관료, 기업인, 언론인 등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창출
- 국내 통계·정보 관련 산업체의 기업홍보 효과와 참가자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홍보 및 경제적 효과
- 세계적 관심사 및 현안과 관련된 국제 통계 논의를 주도하여 국제사회 내 리더십과 위상 강화
- 외국 통계청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과의 인적네트워크 확립을 통한 통계청

국제 협력업무의 저변 확대

- 「2027년 제66차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」의 주요 프로그램
 - 과학 프로그램: 통계조사방법, 빅데이터 활용 등 200여 개 주제에 대한 1,000여 편의 초청논문세션 및 기고논문세션
 - 위성 회의: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기관장 다자 및 양자 협력회의, 노벨수상자 등 저명인사 초청 발표 등
 - ISI와 ISI 연관 단체의 이사회, 위원회, 총회
 - 문화 탐방 프로그램: 당 국제행사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
 - 시상식: 통계와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시상

2. 정책성 분석

가. 행사 개최의 공익성

① 개최목적의 국익과 공익 기여

- 「2027 제66차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」의 개최목적은 국제사회 통계 분야에서 논의 주도, 통계 강국이라는 국가 위상 제고, 통계를 매개로 한 국가 간 협력 강화, 전문가 간 지식공유, 한국의 통계 분야 발전 등과 같은 국익 및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통계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통계 발전 성과를 타국가에 소개하는 것은 통계 분야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와 국가 간 협력 기회 창출 및 강화라는 국익 및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.

요약 표 1. <관련 설문조사 결과>

- | |
|--|
| · 당 국제행사의 개최목적별 국익·공익적 기여(동의 답변 비율) |
| - 통계선진국으로서의 한국 위상 제고: 65.6% |
| - 한국의 통계발전 성과 소개를 통한 모범사례 전파: 64.3% |
| - 최신 통계이슈 선도: 66.6% |
| · 당 국제행사의 중요 개최목적 답변 비율 |
| - 최신 통계이슈 선도: 42.4%, 한국의 통계발전 성과 소개를 통한 모범사례 전파: 28.9% |
| - 통계선진국으로서의 한국 위상 제고: 28.7% |

②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

- △주요 프로그램을 「세계통계대회」의 통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, △국제학술대회 성격의 프로그램 비중이 높다는 점, △한국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 국제행사의 일부 개최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.
- 한국이 당 국제행사를 주최·주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‘통계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’하고 ‘국제통계사회에서 최신 통계 이슈를 선도’하려는 개최목적 달성을 어렵다고 판단됨.

- 국제학술행사 이외에 다양한 회의 및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한국의 통계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개최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요약 표 2. <관련 설문조사 결과>

· 프로그램별 행사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전국민 인식(긍정 답변 비율)
- 과학프로그램 68.5%, 위성 회의 65.3%, 행정 프로그램 58.1%, 단기 코스 프로그램 59.9% 시상식 52.6%

③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

- 당 국제행사는 주무부처이자 주관기관인 통계청의 「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 계획(’23~’27)」 내 ‘한국의 통계 리더십 강화 및 국제사회에 기여’ 부분과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.
-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기관장과의 다자 및 양자 협력회의, ISI와 ISI 연관 단체의 각종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를 활용해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포함해 주요국과의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바, 통계청의 정책과 당 국제행사는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.

④ 주관기관 중장기정책과의 연계성

- 당 국제행사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중장기연구과제와 연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프로그램은 중장기연구과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통계개발원은 △데이터기반 포용정책 연구·개발, △국가통계 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론 혁신, △인공지능·데이터과학 기반 국가통계 생산·활용, △데이터경제 기반 선도 및 활용 연구·개발 등 4가지의 중장기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음.
- 당 국제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과학 프로그램은 통계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당 국제행사 개최는 향후 통계개발원이 수행할 중장기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행사 계획의 우수성

① 행사계획 실현 가능성

- 당 국제행사의 행사계획 실현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높을 것으로 판단됨.
 - 「세계통계대회」는 1887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이래로 2년마다 개최되어 온 국제행사로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.
 - 주요 프로그램은 일관된 포맷을 유지하고 있음.
 - 한국은 2001년에 동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어 개최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됨.

② 개최시점 적절성/필요성/중복성

- 「세계통계대회」는 2027년에 유치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나칠 경우 장기간 개최하기 어렵고, 주요 아시아 국가는 이미 2회 이상 개최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2027년은 개최 시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 - 과거 「세계통계대회」의 개최 일자를 고려할 때 주관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개최 기간인 7월 8일~15일(잠정)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「세계통계대회」의 국제적 위상과 통계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당 국제행사 미개최시 유사행사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「세계통계대회」는 개최 국가의 통계청이 주관해 온 국제행사인 바, 당 국제행사 미개최 시 다른 기관이 이 행사를 대체하여 동종 유사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, 국내 통계관련 학회가 대규모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더라도 당 국제행사에는 국제회의 및 국가 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요약 표 3. <관련 설문조사 결과>

- 「세계통계대회」의 2027년 개최에 대해 전국민 응답자의 83.8%가 긍정 응답
- 2024년에 당 국제행사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'다른 시기에라도 개최해야 한다'는 응답은 65.9%

③ 내외국인 유치 현실성

- 과거 한국에서 개최된 2001년 동일 대회의 결과, 당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주관기관의 유치 노력, 개최지 등을 고려할 때 『기본계획』의 유치계획과 참가 규모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.

④ 홍보 적절성

- 참가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계획은 다소 미흡하며, 특히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민의 관심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대상의 홍보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함.

⑤ 과거 주관기관 유사행사 경험 반영

- 주관기관은 2001년 개최된 「제53차 세계통계대회」 개최 결과를 『기본계획』 수립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.
 - 주관기관은 「제53차 세계통계대회」 회의 기간, 참가규모, 대회 운영요원 수, 발표 논문 수, 전시회 수, 한국의 활동 등에 근거하여 『기본계획』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.

⑥ 시설물 활용 계획 합리성

- 당 국제행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컨벤션센터 벅스코를 임차해 진행되는 행사로 기존시설물을 활용하고 있으며, 잔존시설물이 발생하지 않음

다.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

① 연계성 및 접근성

- 「세계통계대회」는 ISI와 개최국의 통계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지금까지

의 행사에서 개최국 통계청이 공동주관기관이었기 때문에 한국 통계청이 당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적절함.

- 행사 장소인 부산 벡스코는 시내버스 및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고, 공항이나 터미널과 같은 교통거점 역시 지하철 또는 시내버스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높음.

요약 표 4. 부산 주요 교통거점과 행사장 간 접근성

교통거점	거리	대중교통	소요시간
김해국제공항	24km	도시철도, 시내버스	대중교통 60분, 승용차 40분
부산국제여객터미널	13km	도시철도, 시내버스	대중교통 50분, 승용차 30분
부산역	16km	도시철도, 시내버스	대중교통 50분, 승용차 30분

자료: 네이버 지도

② 과거 유사행사 성과 및 인프라 확보

- 통계청은 2001년에 동종행사인 「제53차 세계통계대회」를 개최하였고, 이전 행사에 비해 양적·질적 측면에서 개선된 점이 있다고 판단됨.
- 통계청은 유사행사로서 OECD 최대 규모의 통계행사인 「OECD 세계포럼」을 2009년과 2018년에 개최하였고, OECD와 회원국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통계를 개발하여 통계 기반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.
- 행사장소인 부산 벡스코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개회식, 환영 리셉션, 문화 행사 등을 모두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며, 오·만찬과 같은 부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5성급 호텔도 벡스코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.

③ 중앙부처-지자체 간 협의

-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앙부처 차관급 약 15명을 위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나, 훈령 제정과 관계기관 협의회가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기에 아직 사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음.

- 부산시는 당 국제행사 유치신청 단계부터 통계청과 행사를 계획하였고, 2024년 4월에는 부산시, 통계청, ISI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통계청과 부산시 간 사전협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.

4] 지역주민/기업과의 협의

- 당 국제행사의 주요 참가자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이기에 전문가 그룹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바, 통계청은 통계 전문가 및 기관이 회원인 한국통계학회를 공동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함.
- 당 국제행사는 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통계 관련기업이 행사장에서 취업 설명회와 면접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지만,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을 최근에 결정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과의 사전협의를 아직 진행되지 않음.

5] 지역주민의 지지

-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.3%가 당 국제행사의 개최를 지지함.

요약 표 5. <관련 설문조사 결과>

· 「2027년 ISI 세계통계대회」의 국내 개최 지지도
- 지지한다(적극 지지한다+대체로 지지한다): 85.3%
- 지지하지 않는다(별로 지지하지 않는다+전혀 지지하지 않는다): 1.7%

라.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

1] 국고지원 불가피성 사유

- 전체 참가자의 60%가 외국인으로 예상되는 국제학술대회이자 공익성을 지닌 국제회의라는 행사의 성격과 중앙정부 부처가 주관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.
-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전국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당 국제 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찬성 의견이 74.8%로 나타났다는 결과는 국고지원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.

② 국고지원 수준 적절성

- 주관기관인 요청한 국비 37억 원은 전체 사업비의 100%에 해당하고, 행사의 성격(국제회의), 주최·주관 기관(중앙정부부처), 참가규모, 행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모로 판단됨.
- 과거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과제 중 중앙정부 국제회의 행사 3건의 평균 총사업비는 56.9억 원임.

3. 사업비 분석

□ 본 행사의 총사업비 3,700,000,000원에 대한 원가 검토 결과 적정 총사업비는 3,486,069,704원으로 213,930,296원 과다 책정되어 검토율 94.22%가 도출되었음.

요약 표 6. 사업비 적정성 분석 결과

(단위: 원)

항목	계획금액(A)	검토금액(B)	증감(B-A)	검토율(B/A)
I. 일반 수용비	170,000,000	190,589,400	20,589,400	112.11%
II. 일반용역비	3,350,000,000	3,131,968,433	-218,031,567	93.49%
III. 국내여비	60,000,000	53,708,280	-6,291,720	89.51%
IV. 국외여비	90,000,000	81,328,591	-8,671,409	90.37%
V. 사업주친비	30,000,000	28,475,000	-1,525,000	94.92%
총사업비	3,700,000,000	3,486,069,704	-213,930,296	94.22%

자료: 원가조사 전문기관 조사 결과를 활용해 저자 작성.

4. 종합평가 및 결론

- 전문가 8인이 참여하여 「국제행사관리지침」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「2027 제66차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」의 정책성에 대한 최종평점은 87.29점으로 도출되었음.

요약 표 7. AHP 평가자 8인의 평가 결과

평가기준	배점	표준화 점수	최종평점
행사개최의 공익성	30	86.78	87.29
행사계획의 우수성	30	85.60	
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	20	85.42	
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	20	92.36	

주: 배점은 「국제행사관리지침」에 명시된 값이며, 최종평점은 배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표준화 점수와의 가중평균으로 산출

- 본 행사의 성과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안
 - 2년마다 개최되는 당 국제행사의 특성상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을 바꾸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일부 개최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바, 이 행사를 통해 한국의 통계 역량을 드러내고 국제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.
 - 당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민의 관심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계획이 다소 미흡한 바, 현재 계획 중인 홍보 계획 이외에도 추가적 홍보 방법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.
 - 전통적 통계 분야 외에도 통계가 활용되는 연관 분야로의 프로그램 확대(예를 들어, 경제학, 보건의료, AI 분야 석학 연구자 초청 강연 등)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행사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.
 -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한 보건복지부와 적극적 협업을 통해 당 국제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계 수준을 홍보하고,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